한국사회복지학 319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49 2002. 5. 319~342

재혼가정 내 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김 연 옥**

21세기의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우리 사회가 경험하는 변화중의 하나는 가족유형으로서 특히 재혼가족의 출현이다. 재혼가족은 2000년에 전체 결혼의 약 18%를 차지할 정도로 수적 증가를 보일 뿐만 아니라 특히 여성재혼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점이다. 이러한 변화양상은 이혼율의 증가와 맞물려 재혼가족의 지속적 증가를 쉽게 예측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관심은 미미하였다. 재혼가족은 특성상 그 어느 가족에 비해 취약하고 그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큰 집단이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본 연구는 재혼가족 중에서도 그 역할이 가장 힘들다고 알려진 재혼모에 초점을 두어 재혼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수준과 그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규명하였다. 유목적적 방식에 의해 표집된 분석대상수는 62개였다. 우울척도로 측정된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은 심각한 정도였다. 조사대상자의 46.8%가 임상적으로 경증에서 중증으로 진단되는 우울수준을 보여주었다. 피어슨 상관관계분석결과 결혼생활 유경험자가, 역할수행의 어려움을 적게 느낄수록, 결혼만족도가 클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회귀분석결과 재혼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가장 영향력

* 본 연구는 2000년도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큰 예측요인은 결혼만족도였으며, 다음이 전처의 재혼여부, 계자녀 관계의 어려움, 결혼생활경험, 재혼기간, 경제생활의 어려움 등의 순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결혼전 재혼준비프로그램, 재혼후 재혼가족기능향상 프로그램, 재혼가족관계훈련 프로그램 등과 같은 사회복지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21세기의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은 개인들의 가치관과 삶의 양식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였고, 그 변동중의 하나가 가족유형의 다양화라는 것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뉴밀레니엄 뉴라이프'를 예견하면서 동성애부부가족, 한 개인이 여러 가족의 구성원이 되고 동시에 한 가정도 다양한 출신으로 구성되는 '멀티 패밀리' 등을 거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극단적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사회도 초혼핵가족이라는 20세기 대표적 가족유형을 대신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유형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편부모가족, 무자녀가족, 노인가족,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동거가족 등이 그 예이며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재혼가족[1]의 증가라고 볼 수 있다.

관련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 사회의 재혼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에는 전체 혼인의 5.9%를 차지하였던 재혼이 1990년에 8.0%, 1995년에 10.3%, 2000년에 18%를 점하였다. 10년 사이에 두 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재혼은 그 수적 상승에서뿐만 아니라 유형면에서도 관심을 끄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여성재혼이 현격히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1970년에는 재혼남+초혼녀의 재혼이 초혼남+재혼녀보다 4배 이상 높았으나 90년대 후반부터 이 순서가 바뀌어 1999년의 경우 전체 결혼의 9.6%를 점하는 재혼남+재혼녀의 뒤를 이어 초혼남+재혼녀가 전체 결혼의 4.9%를 차지하면서 3.5%의 재혼남+초혼녀를 앞질렀다는 사실에서 재혼의 양상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재혼율의 증가와 양상의 변화는 재혼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가치관의 변화조짐을 반

1) 재혼가족(*remarried family*)이란 양쪽 배우자 모두에게서, 혹은 어느 한쪽에서 전혼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가족을 의미하며 계부모가족(*stepparent family*)과 동의어이다.

영한다고 하겠다. 여성의 재혼을 금기시하고 죄악시하였던 강한 가부장적 전통은 퇴색하기 시작하였으며 재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조짐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당대의 사회적 문화와 규범의 잣대라고 할 수 있는 TV드라마에서 이혼남과 미혼녀의 결합, 사별한 남자와 이혼녀의 재혼 등 다양한 유형의 재혼가족이 가정의 한 유형으로 긍정적으로 비쳐지기 시작한 것이 그 한 예이다. 또한 1997년에 실시된 한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40대 이상 중년 남녀들은 혼자 남게 되었을 경우 남자는 53%, 여자는 50%가 재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밝혀 재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김연옥, 1999).

재혼가족은 구조, 기능, 가족관계, 정서적 측면 모두에서 초혼가족과는 분명하게 다른 특징을 갖는다. 자녀는 동시에 두 가구의 성원, 즉 현재 동거하는 부모가구의 구성원임과 동시에 동거하지 않는 부모가구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부·모[2]-자녀 간의 유대는 부부간의 유대보다 먼저 형성되었으며 역사도 더 길며, 인위적으로 형성된 부·모-자녀관계는 가족생활 주기와 개인생활 주기 상에 현격한 불일치를 낳는다. 또한 자녀와 성인이 경험했던 이전 가족의 잔재적인 영향도 초혼가족과는 전혀 다른 재혼가족만의 특성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복잡한 특징은 재혼가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재혼가족 내에 부부갈등과 가족갈등을 심화시켜 가정해체의 위험성을 높이게 된다. 결혼의 60% 이상이 재혼이며 재혼가족이 가장 보편적 가족유형인 미국에서도 초혼의 이혼율보다 재혼의 이혼율이 더 높다는 사실이 이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재혼가족 중에서도 특히 재혼모가 겪는 어려움은 누구보다도 어렵고 힘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모의 경우 아동양육과 교육, 가정관리 등 가정생활의 주된 담당자로서, 재혼가족이 형성되는 경우 그에게 부여되는 역할이 가족성원 중 가장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재혼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반영하는 용어들 대부분이 계모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재혼모의 역할비중 크기를 역설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동시에 가정생활에서 재혼모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같은 사실은 경험적 연구에서 실증되었는바, Demo와 Acock(1996)의 연구는 재혼모의 심리적 안녕이 초혼가정의 모보다 낮은 수준임을 밝혔으며, 또한 계모들의 스트레스 수

2) 배우자의 전혼에서의 자녀와 동거하는 부나 모를 의미한다.

준이 계부들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Ahrons & Wallisch, 1987).[3]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혼을 타부시하고 특히 여성의 재혼을 금기시하는 전통적 문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부진하였다.[4] 사회복지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재혼모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서비스나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다해도 과언이 아닌 실정이며 연구결과도 최근에 들어와서야 몇 편의 연구논문들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특히 스트레스와 관련한 재혼모의 연구는 임춘희·정옥분(1997), 임춘희(1996)의 연구 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재혼가족의 수적 증가와 그 본질적 취약성은 재혼이 더 이상 개인사적 경험이 아니라 사회적 관심과 개입이 필요한 사회적 현상임을 말해 준다고 하겠다. 부계직계가족원리에 유지되는 우리나라 가족구조는 재혼가족을 형성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기 쉽다(임춘희·정옥분, 1997)는 점이 특히 재혼모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이와 더불어 재혼가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재혼모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은 그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재혼가족에 대한 가장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개입전략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재혼모가 경험하는 어려움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추고, 재혼모의 디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재혼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재혼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관련 변인

사회복지활동은 개인을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환경 안의 개인'이라는 관점에 기초하여, 환경 속에서 조화롭게 기능하는 개인, 즉 사회적 기능수행을 전문직

3)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재혼모란 전처와의 사이에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남성과 결혼한 여성으로서 이번 결혼이 초혼인 여성과, 전혼에서의 친자녀유무와 관계없이 재혼여성을 포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혼모와 계모가 동일 대상을 가리키나 전자는 좀더 포괄적으로, 후자는 계자녀와의 관계에 초점을 둘 때 선용되었다.

4) 사회복지관련 학회지에서 재혼가족과 관련된 연구논문은 김연옥(1999) 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개입의 초점임과 동시에 궁극적 목표로 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개인내면 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다차원적인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사회체계이론은 이러한 사회복지관점의 유용한 이론적 토대가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체계론적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재혼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개인적, 가족적, 환경적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1) 개인적 차원

결혼생활에서 경험하는 디스트레스와 관련된 재혼모 개인의 특성으로는 무엇보다도 '엄마'로서의 경험유무를 지적할 수 있다(Ganong & Coleman, 1984; Brown, 1984). 평등의식이 우리 사회보다 강하게 뿌리내린 서구사회에서도 아직도 가정에서의 성역할 구분은 남아 있으며, 특히 자녀의 양육과 훈육의 일차적 책임은 모에게 있다. 따라서 재혼함과 동시에 재혼모에게도 이러한 역할이 기대되는데 이때 자녀를 길러본 경험이 계모로서의 역할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자녀를 가져보았던 계부가 부의 경험이 없었던 계부보다 자신의 역할에 더 만족하였으며 계자녀에 대해서도 만족해한다(Pasley, Dollahite, & Ihinger-Tallman, 1993)는 연구결과가 이러한 추론에 타당성을 부여한다고 하겠다.

또한 모의 역할이란 가정의 중추적 기능으로서 아동을 포함한 가족들 생활전반에 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게 관여하고 있으며, 가사뿐만 아니라 가정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일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부담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Demo & Acock, 1996). 이러한 사실에서 유추해 볼 때 결혼생활 경험유무가 재혼모의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재혼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계모로서의 역할이다. 계부모의 역할이 당사자들에게 커다란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Pasley & Ihinger-Tallman, 1982).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이 존재하는데, Hayes & Hayes(1986)는 여성들이 성장과정에서 타인의 욕구에 민감하도록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계모가 되어서도 가족 전체를 혼자서 떠맡으려 하기 때문에 더 힘든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일차적 양육자와 가족 수발자로서의 역할이 오직 계모 한 사람에게 기대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기

도 한다(Cowan & Schuldberg, 1989). 이와는 달리 재혼가족 특성 자체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일찍이 Cherlin(1978)이 재혼을 '미완의 제도'라고 갈파하였듯이, 초혼가족에 비해 재혼가족의 가족경계는 희미하고, 규칙과 역할, 임무 등이 분명하지가 않은데(Sager, et al. 1981), 가족경계가 모호하면 가족원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가족기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Pasley & Ihinger-Tallman, 1989; Crosbie-Burnett, 1989). Whitsett & Land(1992a)는 학자들이 지적한 이러한 개념들을 종합하여 역할과 관련된 어려움을 역할긴장의 개념으로 압축하여 계부모로서의 역할긴장이 결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그 외 인구학적 변인들이 재혼모의 심리적 안녕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울지표로서 재혼모의 심리적 안녕을 측정한 Demo & Acock(1996)의 연구에서 우울이 교육수준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과 관련하여 Brown(1984)은 full-time취업상태의 계모가 part-time이나 무취업 상태의 계모보다 결혼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적게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2) 가족적 차원

재혼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관련된 가족적 변인은 주로 부부, 자녀, 전처 등과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부부관계가 재혼모의 결혼생활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재혼부부의 관계는 초혼부부에 비해 서로에 대한 높은 부정적인 감정, 미숙한 문제해결기술, 낮은 의견일치도 등으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전춘애 · 유계숙 · 천혜정, 1998). 이러한 사실은 재혼부부의 높은 이혼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재혼 이혼율이 초혼 이혼율보다 5%나 더 높으며(Whitsett & Land, 1992b), 재혼여성의 54%, 재혼남성의 61%가 다시 이혼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rosbie-Burnett, 1989). 따라서 남편과의 결혼에 대한 만족 정도가 재혼모 심리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경험적 연구에서도 결혼생활만족도가 재혼모의 심리적 안녕에 관련된 요인으로 밝혀졌다(Demo & Acock, 1996).

재혼모의 결혼생활에 대한 적응과 결혼의 질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계

자녀와의 관계이며 이는 남편의 전처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자녀들은 흔히 부보다는 모에게 더 강한 애착을 가지기 때문에 '또 다른 엄마'가 생기는 것을 힘들어하고 이것이 계모와 심적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재혼모는 계자녀와 생모와의 접촉이 빈번할수록 더욱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특히 재혼모가 엄마경험이 없었던 경우 더욱 악화된다고 한다(Ganong & Coleman, 1984; Brown, 1984).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바에 따르면 전처가 재혼하지 않은 상태로 남편의 성장한 아들과 함께 사는 경우 재혼모는 결혼생활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고 한다(임춘희, 1996). 따라서 전처의 재혼여부와 자녀양육권행사여부, 그리고 더 나아가 전처의 생사여부가 재혼모의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할 수 있다.

Kettinger(1992), Quick, et al(1994)의 연구 모두에서 재혼모의 결혼행복도가 계자녀와의 관계의 질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러한 재혼모와 계자녀와의 관계는 가족구조, 계자녀수, 가족의 경제소득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재혼모는 무자녀로서, 남편에게만 전혼자녀가 있는 단순계모가족이고 동거하는 자녀수가 적으며 경제적 소득이 높을 때, 계모와 계자녀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높았다(Santrock & Sitterle, 1987). 양쪽 배우자 모두 전혼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가 재혼가정의 이혼율 중 가장 높았다는 White & Booth(1985)의 연구결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재혼모의 친자녀유무에 대해서는 이와는 상반된 주장도 존재한다. 임춘희(1996)는 그의 연구에서 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친자녀의 존재는 재혼모의 결혼생활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심리적으로 의지가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3) 환경적 차원

사회체계이론에 기초하여 인간과 환경을 통합하여 바라보는 생태학적 관점을 제시한 Germain & Gitterman(1980)에 따르면 환경에는 인간관계망을 의미하는 사회적 환경, 물적 환경, 시간과 공간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재혼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관련된 환경적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 경제적 측면, 결혼지속기간 등을 들 수 있다. 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그를 둘러싼 사회적 지지간의 정적인 관계는 많은 연구에서 지지되었다. 재혼모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김인숙(1994), 최해경(1997)

등의 연구도 취약집단의 심리적 안녕에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Crosbie-Burnett(1989)은 사회적 지지인 친족과 지역사회의 자원이 재혼가족의 안정과 적응에 긍정적으로 기능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재혼이 보편화된 서구사회에서도 재혼가족에 대한 제도화된 사회적 지지는 결여되어 있다(Ganong & Coleman, 1994). 이런 연유로 재혼과 관련한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가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 Kurdek(1989)는 초혼부부와 재혼부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초혼, 재혼 모두에게 결혼생활로부터 야기되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물적 환경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가족의 경제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재혼과 관련하여 경제적 문제는 별로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 이유는 재혼이라면 우선적 관심이 계부모의 역할에 주어졌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며, 경제문제가 누구에게나 주요한 스트레스원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재혼과 관련하여 경제수준을 연구한 Santrock & Siterle(1987)은 경제적 소득이 높을 때 재혼모와 계자녀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높았음을 발견하였다. 재혼모·계자녀 간의 관계와 재혼모의 심리적 안녕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면 경제수준이 재혼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력을 가진다는 가정을 세울 수 있다. 경제조건의 또 다른 요인은 가정의 경제관리방식이다. Fishman(1983)은 경제관리방식이 재혼가족의 결합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서 부부의 소득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각각 개별적으로 '딴 주머니를 차는 것'보다 재혼가족의 상호 헌신과 결합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특히 서구사회와 달리 가정의 경제관리권이 주로 아내에게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재혼모가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적 요인의 마지막으로 재혼기간을 고려할 수 있다. 재혼가족이 안정된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필요한 시간은 개별적으로 다를 것이다. 학자들의 주장도 편차가 심하여 짧게는 2년부터 길게는 12년까지 매우 다양하지만 재혼가족이라도 어느 일정한 시간이 흘러 가족모두가 적응하여 안정된 상태에 이르면 친부모와 친자녀로 구성된 가족보다 더 많은 문제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에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Walsh, 1992). 따라서 재혼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도 재혼기간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할 것이다.

3. 연구 방법

1) 연구 과제

본 연구의 주요 주제는 재혼가족의 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디스트레스란, 일반적으로 문제나 근심에 직면했을 때 유발되는 정신적 압박과 긴장상태로서 지속적이고 불유쾌하며 과도한 스트레스의 부정적 결과를 의미한다(Selye, 1974). 디스트레스의 지표로는 우울, 불안, 행동 및 정서적 통제의 상실 등이 있는데, 이중 우울은 디스트레스의 대표적인 지표로 간주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정신건강의 부정적 측면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우울로 대표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과제는 재혼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수준파악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으로 대별된다.

2) 표 본

본 연구는 서베이조사설계(*survey research design*)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모집단은 전처의 자녀를 키우는 재혼모로서 자신의 친자녀유무는 관계하지 않았다. 표집은 연구대상의 특성상 비확률표집방법을 적용하였다. 조사대상조건에 합당한 대상자를 찾아서 접근하는 유목적 표집(*purposive sampling*), 그리고 조사대상자를 통해 유사한 다른 대상자를 소개받는 snowball sampling 등의 표집방법들이 적용되었으며, 수집된 72개의 설문지 중에서 무응답항이 많은 설문지와 일관성이 결여된 설문지를 제외한 결과 최종 분석된 표본수는 62개였다.

표본의 특성을 재혼모, 남편, 자녀 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인 재혼모의 나이분포를 보면 40대가 가장 많아 58.1%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30대로 33.9%, 20대가 4.8%, 50대가 3.2%의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평균나이는 40.0세였다. 학력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32.3%,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졸업이 32.2%, 중학교 졸업 이하가 25.8%, 고등학교 중퇴가 9.7%의 분포를 보였다. 조사대상자의 51.6%가 취업상태에 있었으며 48.8%는 전업주부로 나타났다. 직종은

컴퓨터프로그래머, 간호사 등과 같은 전문직종부터 커피숍, 음식점운영, 파출부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조사대상자 남편들의 나이분포를 살펴보면 압도적으로 40대가 많아 전체의 69%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이 30대로 17.7%, 50대가 9.7%, 20대와 60대가 각각 1명으로 전체의 1.6%를 점하였다. 남편들이 평균나이는 43.7세로 조사대상자의 평균나이보다 3.7세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들의 학력수준을 보면 4년제 대학교졸업이 4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이 고등학교 졸업으로 24.2%, 고등학교 중퇴이하가 19.4%, 대학중퇴를 포함한 전문대학 졸업이 16.1%의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대학중퇴와 전문대학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을 모두 합하면 56%로서 같은 학력수준의 재혼모가 전체의 32.2%인 것과 비교하면 남편들의 학력이 월등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남편의 직업을 보면 회사원, 교사, 약사 등과 같은 사무직이 22.6%로 일순위를 차지하였고, 그 뒤를 상점, 음식점 운영 등과 같은 자영업자가 19.4%, 운전기사와 같은 기능작업직이 17.7%, 기업의 임원, 교장 등과 같은 경영관리직이 14.5%,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자유직이 9.7%, 무직과 기타가 동일하게 6.5%, 끝으로 판매원, 상점종업원과 판매서비스직이 3.2%의 분포를 보였다. 고학력을 요하는 사무직, 경영관리직, 전문자유직이 총 46.8%를 점하여 남편들의 학력분포와 어느 정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들 가정의 월소득 평균은 2,148,000원으로 나타났다.[5]

조사대상자들의 결혼유형을 보면 재혼이 53.2%, 초혼이 46.8%로서 재혼이 초혼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혼의 지속기간은 1년~5년 미만이 가장 많아 35.5%, 다음이 10년~15년 미만이 27.4%, 5년~10년 미만이 22.6%, 1년 미만이 9.7%, 15년 이상이 4.8%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평균 결혼지속기간은 6년 5개월이었다. 계자녀, 전남편과의 자녀, 현남편과의 자녀를 기준으로 본 가족유형[6]은 계자녀+현재 남편과의 자녀로 구성된 사례가 3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계자녀만 있는 유형으로 30.6%, 계자녀+전남편과의 자녀 유형이 25.8%, 계자녀+현남편과의 자녀+전남편과의 자녀 유형이 11.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평균자녀

5) 2001년도 3분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214만 원이었다(조선일보, 2002년 1월 25일).

6)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개념 중 가족유형이란 자녀유무를 기준으로 한 개념이며, 가족구조란 자녀와의 동거여부를 고려한 개념이다.

수는 계자녀가 1.8명, 현남편과의 자녀가 1.5명, 전남편과의 자녀가 1.7명으로 집계되었다.

3) 주요 변수 측정도구

측정은 표준화된 척도와 연구자가 개발한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독립변수인 재혼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우울로 측정하였다. 우울은 디스트레스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서구 사회에서 많이 활용되는데 그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는 심리적 현상으로서 생활에서의 긴장을 가장 민감하게 드러내 주기 때문이다(Pearlin & Johnson, 1977, 김인숙, 1994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우울측정 도구 중 임상영역과 접수면접에서 널리 사용되며 신뢰성 있는 척도로 간주되는 Zung이 개발한 자가평가 우울척도(*Self-rating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개의 문항으로 '미래가 희망적으로 느껴진다'와 같이 긍정적으로 진술된 10개의 문항, '의욕이 없고 우울하거나 슬프다'와 같이 부정적으로 진술된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를 1점에서 4점을 부여하는 리커트형 4점 척도로 측정되어 결과적으로 80점에서 20점의 점수범위를 가지며, 긍정적 진술문항을 역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점수가 50이상이면 우울증상이 있는 것으로 50~59점은 경증(*mild*), 60~69점은 중증(*moderate*), 70점 이상은 중증(*severe*)으로 평가된다(Corcoran & Fischer, 1987). 이 척도의 신뢰도는 α = .85로 확인되었다.

재혼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적, 가족적, 환경적 차원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나이, 모로서의 경험유무, 결혼생활경험유무, 계모로서의 역할긴장, 교육수준, 취업여부 등의 6개 변인을 측정하였다. 모경험유무는 전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었는지의 여부로 측정하여 자녀가 있을 때 1, 없을 때 0으로 부호화하였으며, 결혼생활경험 여부는 초혼을 1, 재혼을 0으로 부호화하여 dummy변수로 처리하였다. 계모로서의 역할상의 어려움을 의미하는 역할긴장은 1992년 Whitsett & Land가 재혼부모의 역할수행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Role Strain Index를 우리나라 문화를 고려한 수정보완 작업을 거

쳐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처 아이들은 나와 친모 사이에서 방황한다', '전처아이들 교육과 훈육에 어느 정도 관여해야 되는지 모르겠다'와 같은 총 31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항목은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역할긴장이 높은 것으로 부호화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alpha = .93$이었다.

가족적 차원에서는 결혼생활만족도, 계자녀 수와 나이, 계자녀와의 관계, 전처의 재혼여부와 생사여부, 전처의 자녀양육권행사여부, 가족구조, 재혼모의 친자녀유무[7] 등의 변인을 측정하였다. 결혼생활만족도는 Lee(1978)가 개발한 Marital Satisfaction Scale을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식으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91$로 드러났다. 계자녀와의 관계는 양육, 교육, 의사소통의 영역에 대해 연구자가 개발한 5개의 문항을 10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이 큰 것으로 부호화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89$이다. 전처의 재혼여부는 재혼하지 않았을 때 1, 재혼 시 0, 생사여부는 생존시 1, 사망시 0, 전처의 양육권행사는 자녀와 함께 살 때 1, 그렇지 않을 때 0, 가족구조는 계자녀와 계부모로만 구성된 단순계모가족을 1, 나머지 가족구조를 0으로 부호화하여 dummy변수들로 처리하였다.

환경차원에는 사회적 지지, 경제관련부분, 재혼지속기간 등의 변인이 포함되었다. 사회적 지지는 김인숙(1994)이 사용한 척도를 참고로 하여 지지내용을 경제적 도움, 조언이나 충고, 마음의 위로 등의 3영역으로 나누어 영역별 도움의 출처별 유무를 측정하여 합산하였다. 경제부분은 재혼모가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 가정의 총소득, 가정경제관리형태의 세 변인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가정경제관리형태는 모가 주도권을 가졌을 때를 1, 그렇지 않을 때를 0으로 처리하였다.

4) 자료수집과 분석

자료수집은 조사대상선정과 접근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부, 대학원생을 조사자로 훈련하여 면접조사법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상 조사대상자를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자료수집이 2001년 2월부터 8월까지 오랜 기

7) 본 논문에서 친자녀란 현재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의미하며 '현남편자녀'와 혼용되었다.

간에 걸쳐 수집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적 기술분석과 Pearson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등의 통계기법으로 분석하였다.

4. 연구 결과

1) 재혼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

조사대상자인 재혼모의 우울증을 측정한 결과는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적 우울척도의 평균값은 50점이하인 48.8(SD 10.1)로서 임상적으로 문제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거의 그 수준에 가까운 점수로서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우울점수의 진단구간별 분석자료는 재혼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문제가 되는 수준임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Zung이 제시한 평가기준에 따르면 재혼모의 53.2%는 임상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며, 30.6%는 경증, 14.5%는 중증, 1.6%는 중증의 우울증으로 평가되는 심리적 상태를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총 46.8%에 달하는 조사대상자의 우울척도 값이 임상적으로 우울증으로 진단될 수 있는 50 이상으로 조사되어 재혼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이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내었다.[8]

〈표 1〉 재혼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

우울점수	빈 도	비 율(%)
50 미만	99	53.2
50~59 이하	19	30.6
60~69 이하	9	14.5
70 이상	1	1.6
계	62	100.0

8) 빈곤여성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와 동일한 Zung의 척도를 사용한 김인숙(1944)의 연구에서 평균 우울점수는 50.7(SD 11.9)이었다.

2)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관련변인간의 상관관계분석

선행연구분석을 통해 재혼모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변수들을 개인적, 가족적, 환경적 차원으로 나누어 우울정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9]

〈표 2〉는 재혼모의 우울정도와 개인적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이다. 개인적 변수 중에서 결혼생활경험과 역할긴장이 재혼모의 우울정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즉 재혼모가 초혼인 경우가 재혼인 경우보다 우울정도가 높았으며 재혼모의 역할수행에서 어려움을 느낄수록 우울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3〉은 계자녀와 관련된 변수와 우울정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표 2〉 재혼모의 개인적 변수와 우울정도 간의 상관관계

변 수	나 이	학 력	취 업	결혼생활경험	모경험유무	역할긴장	우울정도
나 이	1.00	-.38**	.05	-.33**	.38*	-.18	-.14
학 력			-.04	.21	.24	.13	.17
취 업				-.19	.28	-.04	-.09
결혼생활경험					.09	.12	.29*
모경험유무						-.06	.08
역할긴장							.43**

** P < .01 * P < .05

〈표 3〉 재혼모의 가족적 요인 중 계자녀 관련변수와 우울정도 간의 상관관계

변 수	계자녀수	계자녀나이	가족구조	계자녀관계어려움	우울정도
계자녀수	1.00	.36**	.18	-.00	.0
계자녀나이			-.15	-.18	-.12
가족구조				-.05	.06
계자녀관계어려움					.19

** P < .01

9) 표 기술상의 문제로 인하여 본문에서 소개되지 못한 변수들간의 상호관계 분석결과는 〈별첨표 1,2,3〉으로 별도 제시하였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재혼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적 요인 중에서 계자녀수, 계자녀의 평균나이, 계자녀와의 동거여부, 재혼모가 느끼는 계자녀와의 관계어려움 등의 변수와 우울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검증된 것은 없었다.

〈표 4〉는 재혼모의 가족적 요인 중에서 계자녀와 관련된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과 우울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재혼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관련된 변인으로 전남편과의 자녀유무, 현남편과의 결혼만족도, 전처의 생존여부, 전처의 재혼여부, 전처의 양육권행사여부 등과 우울정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결혼만족도만이 유일하게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할수록 재혼모의 우울정도는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4〉 자녀관련변인, 결혼만족도, 전처관련변인과 우울정도 간의 상관관계

변 수	현남편과의 자녀	결혼만족도	전처생존	전처재혼	전처양육권	우울정도
현남편과의 자녀	1.00	-.15	-.04	.21	.15	.00
결혼만족도			-.10	.21	.13	-.50**
전처생존				.03	-.01	.13
전처재혼					-.14	.05
전처양육권						-.05

** P < .01

〈표 5〉 재혼모의 환경적 변수와 우울정도 간의 상관관계

변 수	사회적 지지	재혼기간	소 득	경제생활의 어려움	가정경제	우울정도
사회적 지지	1.00	.08	.06	-.28*	-.09	-.16
재혼기간			-.09	.39*	.07	.00
소 득				-.35**	.04	-.27
경제생활의 어려움					.10	.02
가정경제관리						.10

** P < .01 * P < .05

〈표 5〉가 보여주듯이 사회적지지, 재혼지속기간, 월소득총액, 재혼모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 가정의 경제관리형태 등의 환경적 변수와 우울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월소득총액이 재혼모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검증되었다. 즉 경제소득이 높을수록 우울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혼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관련된 개인적, 가족적, 환경적 차원의 변수들간에 존재하는 상호관련성을 통제하여 각 요인별 상대적 영향력을 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표 6〉 재혼모의 우울수준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변 수	B	β	Sig.
개인적 변수			
나이	2.193	1.155	.237
학력	-17.064	-2.994	.069
취업	-47.055	-1.991	.118
결혼생활경험	5.535	1.669	.023
모경험	14.194	.601	.537
역할긴장	.560	.785	.092
가족적 변수			
계자녀수	27.495	1.749	.087
계자녀나이	-7.110	-3.119	.105
가족구조	19.992	.730	.294
계자녀관계 어려움	7.557	1.852	.039
현남편과의 자녀	-64.464	-2.854	.053
결혼만족도	-10.870	-3.938	.045
전처재혼	67.106	3.135	.038
전처생존	2.134	.128	.320
전처양육권	19.992	.730	.294
환경적 변수			
사회적지지	-3.998	-1.478	.185
재혼기간	-.343	-1.657	.046
소득	-.796	-.654	.090
경제생활의 어려움	5.794	1.586	.048
가정경제관리	-17.899	-.847	.237
R^2 = .691		F = 21.579*	

* P < .05

시도하였다. 〈표 6〉은 독립변수들을 동시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독립변수간의 상호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재혼모의 우울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표 6〉에 보이듯이 결혼생활경험, 계자녀와의 관계어려움, 결혼만족도, 전처의 재혼여부, 재혼기간, 경제생활의 어려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재혼모가 초혼으로서 결혼생활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경우, 계자녀의 양육, 교육, 의사소통 등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재혼모, 남편과의 결혼만족도가 낮은 재혼모, 남편의 전처가 재혼하지 않았을 경우, 재혼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재혼모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재혼모의 경우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독립변수들간의 상대적 크기를 알려주는 β값을 비교하였을 때 재혼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는 결혼만족도이며, 다음이 전처의 재혼여부이며, 계자녀관계의 어려움, 결혼생활경험, 재혼기간, 경제생활의 어려움 등의 순으로 예측력이 작아졌다. 흥미로운 것은 전처의 재혼여부가 재혼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결정하는 유의미한 변수로 검증되었다는 것이다. 이 회귀모형의 결정계수는 .691로서 전체 우울변량의 69.1%를 설명하여 주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재혼가족 중 그 역할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재혼모에 초점을 맞추고 그의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을 밝히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발견된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론적, 사회복지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 중에서 무엇보다도 의미있는 점은 그동안 일반적으로 거론되거나 몇몇의 사례분석을 통해 막연하게 논의되었던 재혼모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경험적 실증자료를 제시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우울척도를 통해 측정한 재혼모의 디스트레스는 심각한 수준으로서 조사대상자의 30.6%가 경증의 우울, 14.5%가 중간정도의 우울, 1.6%가 심각한 우울로 총 46.8%가 임상적으로 우울증 진단이 가능한 심리적 상태에 놓여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혼모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선입견이나 통념적

인식을 대신할 수 있는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이해의 토대를 제공하였으며, 더 나아가 재혼모에 대한 복지적 개입의 필요성을 환기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재혼현상의 커다란 변화라면 물론 재혼율의 급격한 증가일 것이다. 이에 못지 않게 관심을 끄는 부분은 여성재혼이 늘어나고, 재혼에서 '재혼신부'의 수가 '초혼신부'의 수를 앞질렀다는 점이다. 변화된 재혼패턴이 본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는바, 즉 조사대상자의 53.2%가 재혼이었으며, 46.8%가 초혼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의 이혼율 증가라는 또 다른 사회현상과 맞물려 재혼가족의 지속적 증가를 예측 가능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한다고 하겠다.

변수간의 상호관련성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 재혼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로 검증된 것은 결혼 전 결혼생활경험유무, 역할긴장, 결혼만족도, 소득 등이었다. 이중 결혼생활경험은 변수간의 상호영향력이 통제된 후에도 재혼모의 디스트레스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검증되었다. 즉 재혼모가 초혼으로서 결혼생활 경험이 없었던 경우 우울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재혼에 대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재혼 전에 재혼생활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인식과 기대를 제고하고 준비시키는 교육의 필요성과 더불어 이러한 영역에 대한 사회복지 개입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재혼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검증된 것은 결혼만족도로서 기존의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현실적으로 재혼부부는 초혼부부보다 부부갈등이 더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혼가족과 다른 재혼가족의 특성이 부부관계를 더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재혼가족의 역할과 규범, 기능 등에 대해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교범'이 부재한 거의 '무규범적인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본 조사결과는 재혼가족의 부부관계를 향상시키는 기술훈련프로그램, 부부간의 역할기대나 수행을 교육하는 부부교육프로그램 등과 같은 재혼가족대상프로그램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관심을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계자녀와 관련된 변수 중에서 회귀분석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 것은 재혼모가 계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계모-계자녀 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실증적 입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재혼가족에 대한 가족관계훈련프로그램, 부모역할훈련프로그램, 가족치료 등의 사회

복지적 개입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는 데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계자녀와의 어려움을 제외한 계자녀의 수, 나이, 동거여부 등 서구사회에서 진행된 연구들에서 재혼모의 심리적 안녕과의 관련성이 입증된 계자녀관련 변수들이 본 연구에서는 그 관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또한 재혼모의 교육이나 나이 등과 같은 인구학적 변수들, 사회적 지지 등 관련성이 기검증된 변수들의 다수가 본 연구에서는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나 재혼모에 대한 연구가 일천한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대어 재혼가족에 대해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보다는 이 주제에 대한 추후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연구결과가 좀더 축적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특성상 표집에서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 조사대상자 접근 경로상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대상이 선정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함에 있어서 표집의 한계를 언제나 고려해야 할 것임을 밝힌다.

〈별첨표 1〉 재혼모의 개인적 변인과 가족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변수	나이	학력	취업	결혼생활경험	모경험유무	역할긴장
계자녀수	.28*	-.13	.06	-.07	-.08	.17
계자녀나이	.55*	-.41*	.09	-.10	.38*	-.18
가족구조	-.44	.17	-.13	.22	-.79*	.13
계자녀관계어려움	-.15	.04	-.14	.12	-.09	.58**
현남편과의 자녀	-.13	-.05	-.13	.28*	.00	-.02
결혼만족도	.00	.03	.13	-.15	-.13	-.43**
전처생존	-.24	-.05	.03*	-.12	.09	.64
전처재혼	-.10	.36*	-.22	.21	.09	-.03
전처양육권	-.04	-.14	-.01	.03	-.09	.02

** $P < .01$ * $P < .05$

〈별첨표 2〉 재혼모의 가족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변 수	사회적지지	재혼기간	소 득	경제생활의 어려움	가정경제관리
계자녀수	-.15	.12	.17	.04	.00
계자녀나이	-.19	.47**	-.14	.22	-.04
가족구조	.09	.11	-.17	.06	-.09
계자녀관계어려움	-.19	-.05	.05	.19	-.14
현남편과의 자녀	.11	.27*	-.24	.09	-.03
결혼만족도	.34**	-.15	-.11	-.17	.20
전처생존	-.04	-.21	-.16	-.01	.07
전처재혼	.08	-.08	-.10	.11	.11
전처양육권	.09	.11	-.17	.06	-.09

** P < .01 * P < .05

〈별첨표 3〉 재혼모의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변 수	사회적지지	재혼기간	소 득	경제생활의 어려움	가정경제관리
나이	-.31*	.33*	-.09	.28*	-.09
학력	.10	-.41**	.27*	-.34**	.01
취업	.08	-.08	-.06	-.05	-.26*
결혼생활경험	.16	.28*	.20	.04	.30*
모경험유무	-.10	.23	-.07	.04	-.05
역할긴장	-.09	-.09	.20	.06	-.15

** P < .01 * P < .05

• 참 고 문 헌 •

김연옥. 1999. "재혼가정 내 모의 역할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3호, pp. 41~62.

김인숙. 1994. "빈곤여성의 사회적 환경요인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전춘애 · 유계숙 · 천혜정. 1998. "재혼가족에 대한 실태연구,"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개소 5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pp. 3~66.

임춘희. 1996. "재혼가정 내 계모의 스트레스와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임춘희 · 정옥분. 1997. "초혼계모의 재혼가족생활 스트레스와 적응에 대한 경험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5호, pp. 73~102.

최해경(1997). "사회적 지지망구조가 편부모가족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3, pp. 377~395.

Ahrons, C. R. & Wallisch, K. 1987. "Parenting in the Binuclear Family : Relationships between Biological and Stepparents," In Pasley, K. & Ihinger-Tallman, M. (ed.), *Remarriage and Stepparenting Today : Current Research and Theory*, New York: Guilford, pp. 225~256.

Brown, K. 1984. "Stepmothering in Stepmother and Combination Families : The Strains and Satisfactions of Making the Role of Stepmother," Ph. D. diss. University of Texas, Austin.

Cherlin, A. 1978. "Remarriage as an Incomplete Institu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4(3), pp. 634~650.

Corcoran, K. & Fischer, J. 1987. *Measures for Clinical Practice*, New York: The Free Press.

Cowan, P. A. & Schuldberg, D. 1989. "Changing Parent and Spouse Relations in the First Years of Remarriage of Divorced Fa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pp. 445~456.

Crosbie-Burnett, M. 1989. "Application of Family Stress Theory of Remarriage : A Model for Assessing and Helping Stepfamilies," *Family Relations*, 38, pp. 323~331.

Demo, F. H. & Acock, A. C. 1996. "Singlehood, Marriage, and Remarriage : The Effects of Family Structure and Family Relationships on Mothers' Well-being,"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pp. 388~ .[10]

Fishman, B. 1983. "The Economic Behavior of Stepfamilies," *Family Relations*, 32, pp. 359~366.

Ganong, L. & Coleman, M. 1994. *Remarried Family Relationship*, London: SAGE Publications.

_____. 1984. "The Effect of Remarriage on Children :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Family Relations*, 33, pp. 389~406.

Germain, C. B. & Gitterman, A. 1980. *The Life Model of Social Work Practi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Ihinger-Tallman, M. & Pasley, K. 1987. *Remarriage*, London: SAGE Publications.

Kettinger, G. J. W. 1992.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Factors Related to the Quality of the Stepmother Stepchild Relationship,"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3(10), 3687A.

Kurdek, L. 1989. "Relationship Quality of Newly Married Husbands and Wives : Marital History, Stepchildren, and Individual Difference Predict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pp. 1053~1064.

Lee, G. R. 1978. "Marriage and Morale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 pp. 131~139.

Pasley, K., Dollahite, D. & Ihinger-Tallman, M. 1993. "Bridging the Gap : Clinical Applications of Research Findings on the Spouse and Stepparent Role in Remarriage," *Family Relations*, 42, pp. 315~322.

Pasley, K. & Ihinger-Tallman, M. 1982. "Stress in Remarried Families," *Family Perspective*, 16(4), pp. 181~190.

_____. 1989. "Boundary Ambiguity in Remarriage : Does Ambiguity Differentiate Degree of Marital Adjustment and Integrity?," *Family Relations*, 38, pp. 46~52.

Pearlin, L., & Johnson, J. 1977. "Marital Status, Life Strains and Depress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 704~715.

Quick, D. S., McKenry, P. C., & Newman, B. M. 1994. "Stepmothers and Their Adolescent Children : Adjustment to New Family Roles," In K. Pasley & M. Ihinger-Tallman (eds.), *Stepparenting : Issues and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Connecticut, Greenwood Press, 105~126.

Selye, H. 1974. *Stress without Distress*. Philadelphia: J. B. Lippincott Company.

10) 인터넷을 통해 DB에서 다운받은 자료로서 시작페이지만 알 수 있었다.

Sager, C. J., Walker, E., Brown, H. S., Crohn, H. M., & Rodstein, E. 1981. "Improving Functioning of the Remarried Family System,"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7, pp. 3~13.

Santrock, J. W. & Sitterle, K. 1987.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Stepmother Families. In Pasley, K. & Ihinger-Tallman, M. (ed.), *Remarriage and Stepparenting Today : Current Research and Theory*, New York: Guilford.

Walsh, W. 1992. "Twenty Major Issues in Remarriage Families," *Jr.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0, pp. 709~715.

White, L. K. & Booth, A. 1985.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Remarriage : The Role of Stepchildr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0, pp. 689~698.

Whitsett, D. & Land, H. 1992. "The Development of a Role Strain Index for Stepparents," *Families in Society :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73, pp. 14~22.

_____. 1992. "Role Strain, Coping, and Marital Satisfaction of Stepparents," *Families in Society :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74, pp. 79~92.

Determinants of Psychological Distress of Mothers in Stepfamilies

Kim, Yoon-Ok
(Dep. of Social Welfare, University of Seoul)

The nuclear family is no longer the typical Korean Family. In recent years, stepfamilies have been of the most rapidly growing family forms in Korea. Census Bureau data show that 5.9% of marriage were in 1980, 8.0% in 1990, 10.3% in 1995, 18.0% in 2000. Especially it is remarkable that women's remarriage have been increased. In spite of the fact, the stepfamily is not an urgent issue of social welfare in Korea. The stepfamily is more vulnerable than the first-marriage family in many reasons such as vague family rules, boundary ambiguity, and stepparent role ambiguity, which provides rationale for social welfare services.

This study categorizes determinants of psychological distress in remarried mothers into individual, family, and environment level and tries to prove the relationships between psychological distress and determinants. Also, it explores the degree of psychological distress in remarried mothers using Zung's Self-Rating Depression Scale. The respondents of survey research are 62 cases.

The result shows relatively severe level of depression among the subjects. 46.8% of them are clinically diagnosed as mild, moderate, severe depression.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variables of marriage satisfaction, ex-wife's remarriage, role strains, marriage experience, and income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psychological distress in remarried mothers. The most powerful predictor of psychological distress is the variable of marriag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result, it is desperately needed to pay attention to social welfare services or programs for stepfamilies.

[접수일 2002.3.5 게재확정일 2002.4.4]